

知性と覇氣

...



4 특별초대석/고은 시인
고뇌와 방탕 그리고 한계, 그것은 젊음만이 갖는 가능성이다/조영복

스승의 그림자/장육진 12 작은 것을 사랑한 거인의 '행복 그리기' /최종태

움직이는 대학/이바름 야간학교 14 대학생도 이제 야학을 떠나는구나! /배영한



20 나의 꿈 나의 삶 /육승업
이런 시 읽을 수 있습니까?
마임니스트 육승업의 몸짓 이미지/황금희



27 특집/대학 신문이 한 일과 할 일
우리 대학도 신문 낸다? /방정배
이젠 주인 노릇도 특특히 해야겠다/이범수
대학 신문 독자 자격증은 '덤'이 아니다/치현수
아직도 독자를 계도하겠다고? /강범석
유행병 앓는 일본의 대학 신문 /다께미즈 가리수

짧은 글 깊은 생각 50 가마우지의 슬픔/강은교

뿔아보는 현대사 54 광주학생운동, 배경에서 확산까지/이균영

세계의 대학/마드리드국립대학교 76 세르반테스의 후예들이 지키는 서반아문화권의 지주/박 철

정보통신으로 본 한국 역사(8) 81 근대 전기통신의 도입과 주체적 수용/진용욱

잡지 「지성과 패기」

1993년 9. 10월호(통권18호) • 1993년 9월 21일 발행 • 격월간(비매출) • 1990년 9월 18일

등록(마-1646) • 발행인/손진승 • 편집인/최시호 • 발행처/선경그룹

• 「지성과 패기」는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코자 표지에 비닐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60 한 예술가의 초상
캐테 콜비츠, '착한 사마리아 여인' /박명옥



68 한국의 섬/손죽도
손죽도의 향기, 그 선비적인 오롯함

캠퍼스 패션의 사회학/1970년대	86	'청바지'와 '통기타'와 '생맥주'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 /유석춘
캠퍼스 토론	91	대학생의 노래 문화
시	99	노래부르자 /이갑수
대학생의 성(性) 의식	100	억눌린 성인가, 성의 포로인가? /김영현
과학 속에 숨은 이야기(8)	104	비극의 화학자 프리츠 허버, 독가스를 얻고 아내를 잃다 /이필렬
하이테크의 물결	110	천덕꾸러기 플라스틱, 완전 분해도 멀지 않았다 /조원영
달라지는 세상	115	소용돌이치는 개혁의 물결, 이탈리아 사정 바람 /김정서
나의 대학 시절	120	여전히 빗장걸린 고통의 창고 /도종환
이 책만큼은	124	이재선 교수가 뽑은 대학생 필독 한국소설 10권
한민족 건강 관리법	128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온다 /안동환
동아리 탐방/연세대학교 '한글 물결'	132	말이 살아야 겨레가 산다 /김동환
지성과 패기 창간 3주년 호별 총목차	134	

'청바지'와 '통기타'와 '생맥주'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

유석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70년대는 우리 현대사에서 경제적 '성장'의 시기로 기록된다. 60년대의 가난을 뿌리치고 80년대의 풍요로움을 성취하고자 온 국민이 앞만 보고 열심히 뛰던 그런 시대였다.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유신에 반납하고 그 대가로 약속된 경제적 풍요를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 월남의 정글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그리고 기생 관광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던 시절이었다. 정치적 권리의 유보가 경제적 가능성을 보장한 역설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의식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곳은 물론 대학이었다. 70년대의 대학 캠퍼스에는 긴급 조치, 계엄령, 위수령 등과 같이 극단적인 형태로 국가 권력이 깊숙이 침투하여 급기야는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군사 교육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강제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저항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매학기 첫 한 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울분을 '청바지'와 '통기타' 그리고 '생맥주'에 담아 대학가, 주변으로 퍼뜨려 이른바 '청년 문화'라는 저항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다. 지금도 대학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가요인 김민기의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70년대에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경찰의 장발 단속에 걸려 머리카락을 잘리는 남학생(위)과 스커트 길이를 단속받는 여학생(왼쪽).

'아침 이슬'은 바로 이 시대의 정서를 가장 잘 집약한 노래이다.

70년대 초 대학생들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 문화는 미국의 반전 운동을 배경으로 발전한 히피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60년대 대학생들이 즐겨 입던 물들인 군복과 교복 그리고 군화를 벗어 던지고 이들은 성장의 시내에 걸맞게 청바지와 운동화라는 보다 세련되고 활동적인 복장으로 갈아 입었다. 또한 젓가락 장단에 맞춰 소주나 막걸리를 기울이며 읊어 대던 신파조의 노래 대신 서구 뱀새가 물씬 풍기는 통기타를 둘러메고 거품이 넘치는 생맥주 잔을 들고 '사이먼과 가펩클'로 대표되는 포크 계열의 팝송을 즐겨 불렀다. 60년대에 유행하던 귀 밑을 짚고 친 스포츠형의 군인머리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느덧

덱수룩한 히피류의 장발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영화 '바보들의 행진'은 당시의 이러한 대학 문화를 잘 기록해 주고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70년대에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가위를 들고 머리 길이를 재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다녀야 했으며, 여학생들은 자를 들고 부릉 위부터 스커트까지의 길이를 재는 경찰로부터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국가 권력의 손은 개인 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어 그들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또한 그들이 입은 옷을 재단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이러한 수모를 겪던 이들이 요즈음의 포스트모던한 신세대의 패션을 보면 어떠한 느낌을 가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였던 옷차림은 바지통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엉덩이를 꼭 조이는 판탈롱 바지였다. 요즈음도 판탈롱이 다시 유행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유행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당시는 바지단이 구두를 덮어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입었던 데 반해 요즈음은 발목이 드러나도록 짧게 입는 것이 유행이다. 당시 심한 경우는 바지단이 하도 넓고 길어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지를 입었는지 치마를 입었는지조차 전혀 모를 지경이었다. 이러한 당시로서는 첨단 유행의 옷을 보고 다수의 학생들은 서울시 청소과 직원이 거리를 쓸고 다니는 것이라고 빈정거리기도 하였다.

대학 배지는 그 당시 대학생들의 엘리트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건 그렇지 못한 학생이건 자신이 속한 대학의 상징을 바깥에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대학생 집단이라는 일종의 선민 의식을 과시했던 것 같다. 그 당시 이 배지에 얽힌 일화 가운데 한 가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 소개한다. 신촌의 명문 사립 여자대학을 다니는 한 여학생이 목욕을 갈 때 배지를 어디에 달아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급기야는 때를 밀 때에 사용하는 이태리 타월에 배지를 달고는 안심하고 목욕탕으로 향했다는 우스갯소리이다. 당시 배지를 이용한 과시적 성향을 날카롭게 풍자한 조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조크에 담긴 비판 의식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배지를 다는 풍조를 사라지게 한 배경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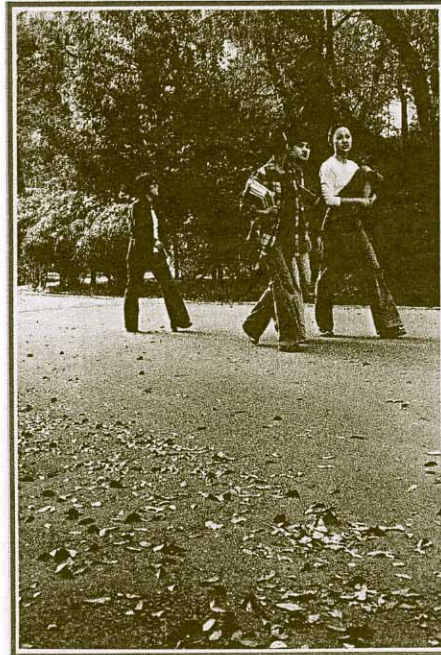
70년대의 경제적 성장을 우리 사회가

수확한 열매라고 본다면 그 성장을 뒷받침한 밑거름은 성장의 그늘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의 땀이었을 것이다. 당시 '공돌이'와 '공순이'라 불리던 이들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대학생들의 비판 의식 속에 결정적인 준거로 작용하였다. 1970년 청계피복 노조원 전태일의 분신이 상징하고 있는 이들의 희생은 1978년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베스트 셀러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 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마침내는 80년대 학생 운동의 좌편향 양상을 담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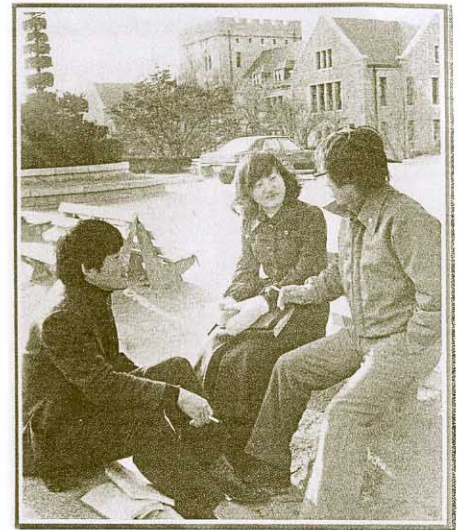
그러나 이 당시의 대학생들은 80년대와 비교하여 여전히 낭만적이었다는 평가에서



판탈롱 바지는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 가장 유행했던 옷차림이었다. 이러한 옷차림을 보고 다수의 학생들은 서울시 청소과 직원이 거리를 쓸고 다니는 것이라고 빈정거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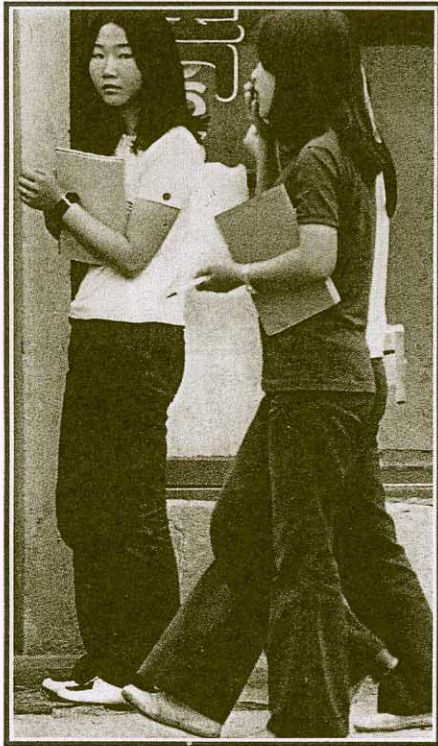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미팅을 시작하여 철따라 딸기 미팅이다, 배꽃 미팅이다 하며 전국을 누볐고, 캠퍼스에서는 카드 놀이인 '마이티'와 '기루다' 및 '포커'를 하느라 수업을 밥먹듯 빼먹기 일쑤였다. 또한 개교 기념일을 전후한 축제에서는 정장을 차려 입고 반드시 파트너를 동반한 쌍쌍 파티를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즐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대학 축제의 마지막 날은 항상 현란한 불꽃 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으며 '딤 퍼플'과 같은 빠른 템포의



음악과 '헬렌 레디'와 같은 감미로운 음악을 교대로 들으며 '고고' 춤과 '블루스' 춤을 파트너와 함께 즐기곤 하였다. 이러한 축제의 모습은 60년대의 '남녀칠세부동식' 식의 축제 문화 부제로부터 80년대의 '대동제'라는 집합적인 놀이 문화의 개발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의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당시부터 근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야학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생들 사이에 근로자들의 삶을 문제시하는 의식이 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의 일부 서클에서는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를 찾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탈춤과 마당놀이 및 민속극 등을 가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학 문화의 전통 찾기 작업은 80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마침내 90년대에 들어 '서편제'라는 기념비적인 예술 작품이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학 생활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70년대 학번이야말로 어느 세대 못지않은 젊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세대였다.



‘청바지’와 ‘통기타’ 그리고 ‘생맥주’, 이 세 단어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에게 아련한 젊은 날의 추억을 회상시켜 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80년대와 같이 살벌한 정치 구호가 캠퍼스에 나붙지도 않았고, 90년대와 같이 자가용족이 캠퍼스를 누비지도 않았던 시절에 대학을 다닌 70년대 학번은 어쩌면 가장 목가적이고 공동체적인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행운의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

같은 학과의 동료간에 혹은 선후배간에

이념이 달라 혹은 생활 양식이 달라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울리지 못하는 오늘의 대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80년대 같이 대학의 학생수가 넘쳐 교수가 학생의 얼굴과 이름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나 대학에 들어 오는 순간 자신이 속한 학과의 진정한 공동체적 구성원이 될 수 있었고, 선배와 후배, 동기들은 서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비록 개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교수들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었고, 딴 짓 하느라고 꾸중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 삭막함과 소외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윤형주의 “웃음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없는 웃음이, 라일락 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로 시작되는 노래는 아마도 70년대 대학의 낭만을 가장 잘 전해 주는 가요일 것이다.

토요일, 깨끗하게 세탁한 청바지를 차려 입고 노블 와인을 마시며 데이트를 즐기던 70년대의 학번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중견으로 활약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요즈음의 신세대 후배들에게는 구시대의 낭만주의자로, 기성 세대로부터는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로 낙인 찍히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지만 대학 생활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세대 못지않은 젊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세대였다. ●